레닌으로 '무엇을 할 것인가': 오늘날의 레닌들
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레닌

김인식(다함께 활동가)

"아무도 자본주의가 아닌 가능한 대안을 더는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에, 확실히 '레닌'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"

– Sebastian Budgen, Stathis Kouvelakis and Slavoj Zizek (eds), *Lenin Reloaded: Towards a Politics of Truth*, Duke University, 2007 편집자 서문에서

● "21세기에 레닌은 좌파에게 할 말이 있는가?"

– Alex Callinicos, 'Leninism in the Twenty-first Century? Lenin, Weber, and the Politics of Responsibility', *Lenin Reloaded: Towards a Politics of Truth*, p19, Duke University, 2007

→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국면, 즉 세계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제기된 물음이다.
알렉스 캘리니코스, "이 저항들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좌파 중 일부 강력한 경향들은 확실히 레닌의 전위 정당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탈집중화한 조직 형태를 추구한다. 정말이지 아나키스트들은 때로 이런 사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권위주의자라고 부르며 반자본주의 연합체에서 배제하고자 한다."(p19)

● '레닌주의' 신화

→ "악마화와 경멸과 함께, 레닌은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 자유주의 서클에서도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돼 있다."(알렉스 캘리니코스, p18)
; 올랜드 파이지스(*A People's Tragedy*), 레닌을 마초 기질의 귀족 깡패로 묘사
; 로버트 서비스, 레닌은 "자신의 사상만이 혁명 운동을 진정으로 전진하게 할 것"이라고 믿었다. "과대망상"

● 레닌은 "결정론"적인가

→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젝의 "결정론"에 도전.
→ 레닌=마키아벨리안=기회주의인가?
→ 알렉스 캘리니코스, "1917년 레닌의 구실은 핵심적인 두 가지 정치 사상의 주제를 반영한다. (1) 역사의 복잡성과 불가측성, (2) 정치적 개입의 필요성."(p25)
→ 역사의 불가측성=불확정성?
→ 레닌에게 역사의 불가측성이야말로 역사의 형성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 함을 뜻한다. 이것은 ≪무엇을 할 것인가≫에서 잘 나타난다.

● 이른바 '레닌주의' 이미지는 냉전의 산물

→ ≪무엇을 할 것인가≫가 쓰여졌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'레닌주의' 이미지를 반민주적인 엘리트주의 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왜곡.
→ 이런 해석은 냉전의 산물
; 냉전 시기 공산주의자를 악마화, 이 과정의 거울 이미지는 동구에서 레닌의 우상화.

● 좌파의 ≪무엇을 할 것인가≫ 텍스트 해석

→ 현대 좌파들 중 상당수의 확고부동한 상식들
; 레닌은 ≪무엇을 할 것인가≫에서 노동자들의 지적 능력을 경멸하며 "직업적 혁명가들"의 당 건설을 주장했다?
→ 이 당이 외부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노동계급에 주입하고 이 계급을 상명하달식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?
→ 이런 전망이 1917년 이후 스탈린주의를 낳았다?
; 마이클 하트와 토니 네그리는 볼셰비키 당의 위계적 구성 때문에 1917년의 희망이 부정됐다고 주장(≪다중≫).
본펠드와 띠쉴러(Tishler)는 "레닌주의적" "당 형태와 혁명의 내용은 모순된다"고 주장(≪무엇을 할 것인가?≫).

● 로자 룩셈부르크와 트로츠키의 레닌 비판에 대해

; 1904년 트로츠키, "당 조직이 당 전체를 대리한다;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당 조직을 대리한다; 마침내 '독재자'가 중앙위원회를 대리한다."
; 룩셈부르크, "노동자들을 중앙위원회의 유순한 도구"로 만드는 레닌의 이른바 "전지전능한 중앙위원회" 이미지를 비판.
→ 룩셈부르크와 트로츠키는 레닌의 실천적 결론이 볼셰비키 당과 러시아 노동계급의 결별일 것이라고 예측. 이 예측들은 1917년 사건들에서 유지될 수 없었다.

●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존재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의 관계

→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오직 아래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연적으로 부문적이고 파편화한 투쟁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. 부문적이고 파편화한 투쟁의 성격이 얼마간 선진적 노동자들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의 등장 사이에 차이점을 만들어낸다.
→ 리더십이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급 투쟁에서 등장한 평범한 지도자들이 성공한 뒤에는 필연적으로 타락해 새로운 엘리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다. 엘리트 이론이다.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주의는 유토피아다.
→ Lars T Lih, "종종 그 금언[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]은 전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, 실상 전위주의를 거의 불가피한 것으로 만든다. 프롤레타리아가 사회주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면 위대한 행위 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."(*Lenin Rediscovered: What is to be Done? in Context*, Brill, Historical

Materialism series, 2006)
→ 토니 클리프, "[노동계급 내부의] 단결과 분열 경향이 혁명 정당의 필요성을 창출한다."(*Trotsky: Towards October*, p58)
→ 안토니오 그람시는 지도자들이 민주적 타입과 반민주적 타입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. "지도자들의 형성에서 한 가지 전제가 기본 원칙이다: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존재하게끔 하려 하는가 아니면 더는 그런 분열이 필연적이지 않는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가?

● 레닌의 문제 의식

→ 레닌의 유명한 대비. 한편에서는 인텔리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의식과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생적 노동조합 의식의 한계.
→ 레닌이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 불신의 징후가 아니다. 그것은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.
→ 닐 하딩도 그 비슷한 지적을 한다. 레닌은 "임무를 감당 못하는 것은" 사회주의자들이지 대중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(*Lenin's Political Thought*)
→ 레닌의 정치적 리더십 개념은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에서 커다란 주도력을 보여 줬다는 것을 가정한다.
→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사전의 다른 어떤 용어보다 커다란 비방과 오해를 샀다. 아이러니이게도, 멘셰비키가 러시아에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. 그들은 1905년 규약을 만들 때 독일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 용어를 차용했다. 독일 사회주의 운동은 이 용어를 1865년에 만들었다. 레닌은 한 달 뒤에 멘셰비키로부터 이 용어를 차용. 물론 레닌이 독일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개념을 자기 견해 없이 단순히 전수받은 것은 아니었다.
[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와 레닌의 논쟁 사례]

● 레닌의 리더십 개념

→ 레닌은 노동자 운동의 사회주의적 잠재력에 비관적이었는가?
; 레닌은 "노동자 전투성은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으며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. 문제는, 취약한 고리는 이 모든 전투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당 지도력이다. <이스크라>는 이 문제에 정확히 주의를 집중시킨다 — 노동자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부족함에 대해." 하고 응수
→ '대중은 어린이 같다'거나 대중에게 '정치'는 시간 낭비라는 주장을 믿는 사회주의자들에 맞서, 레닌은 노동자들에게 경제 쟁점만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긴 하지만, 그와 동시에 노동계급 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도전하지 못한다고 답했다.
→ Lih에 따르면, 사회주의자들이 도전해야 한다고 레닌이 주장했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들은 tred-iunionizm. tred-iunionizm인데, 이것은 노동자 운동이 사회주의 사상을 배제하고 경제 쟁점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였다.
→ 레닌이 tred-iunionizm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대중의 자발적 운동에 대한 믿

음을 반영한 것.
“민중 봉기에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레닌은 리더십의 선택이”, 구체적으로 tred-iunionizm과 사회주의 사이에서, “중요하다고 생각했다.”(Lih)

● 오늘날 레닌주의
알렉스 캘리니코스, “21세기 도입부에 레닌은 좌파에게 어떤 유효성이 있는가?”

① 자본주의에 대한 전략적 분석의 중요성
레닌은 결코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주의 경제 사상가는 아니었지만, “레닌은 정치 행위자들을 전략적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이론적 분석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여 줬다.”(p36)

② 정치의 특수성과 중심성
레닌은 “정치는 경제의 응축된 표현이다”고 썼다. 국가 구조와 투쟁들에 계급 사회의 모순들이 집중돼 있고 융합돼 있다. 전략적 분석이 이런 통찰을 돕는다.(p37)

③ 정치 조직의 필요성
이것은 ②의 쟁점과 직접 연결돼 있다. 국가를 통한 자본가 권력의 집중성에 맞서 프롤레타리아의 에너지를 집중시킬 필요성은 레닌의 혁명 정당 개념의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.(p38)